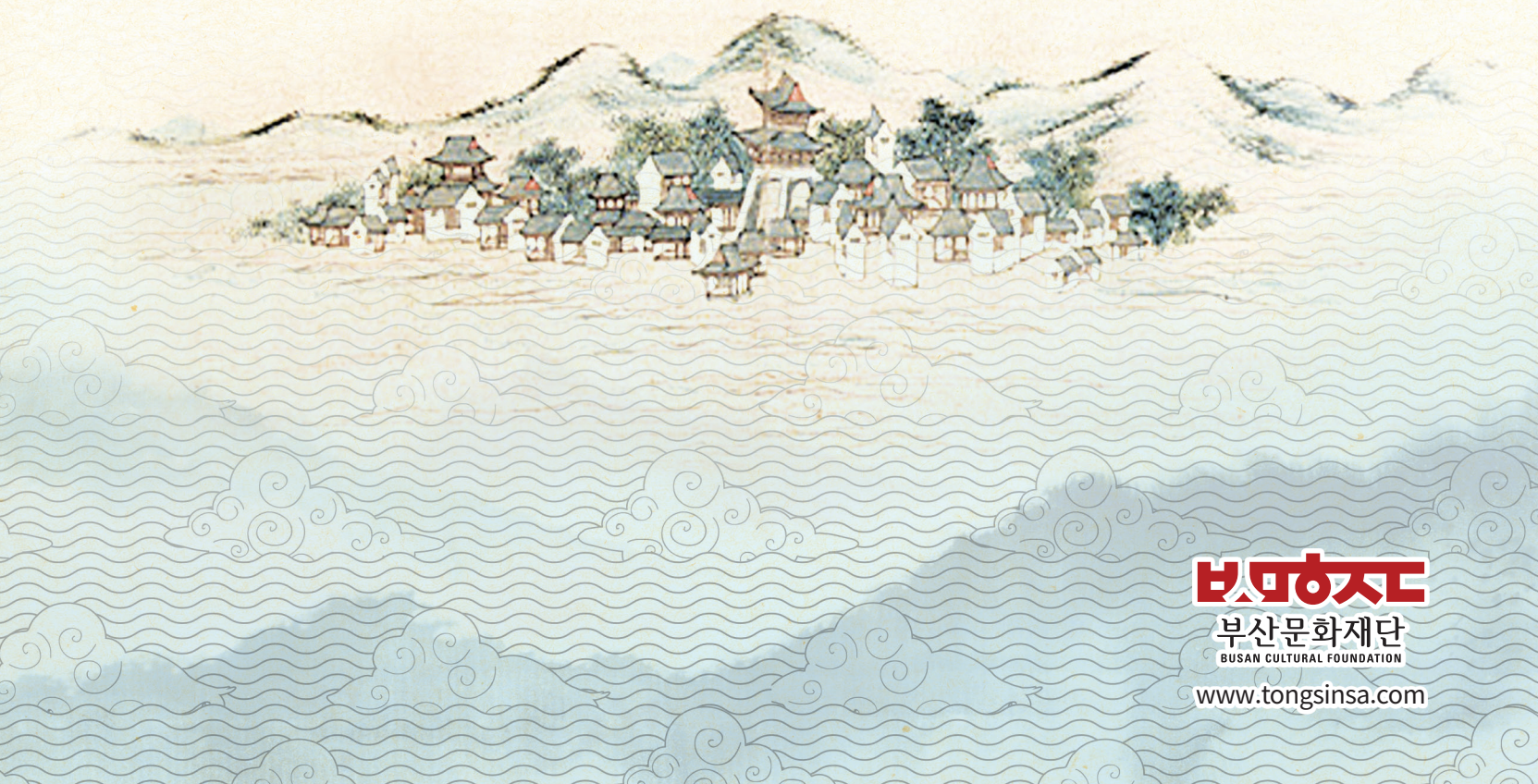


(재)부산문화재단 2019-016

AUTUMN 2019 가을호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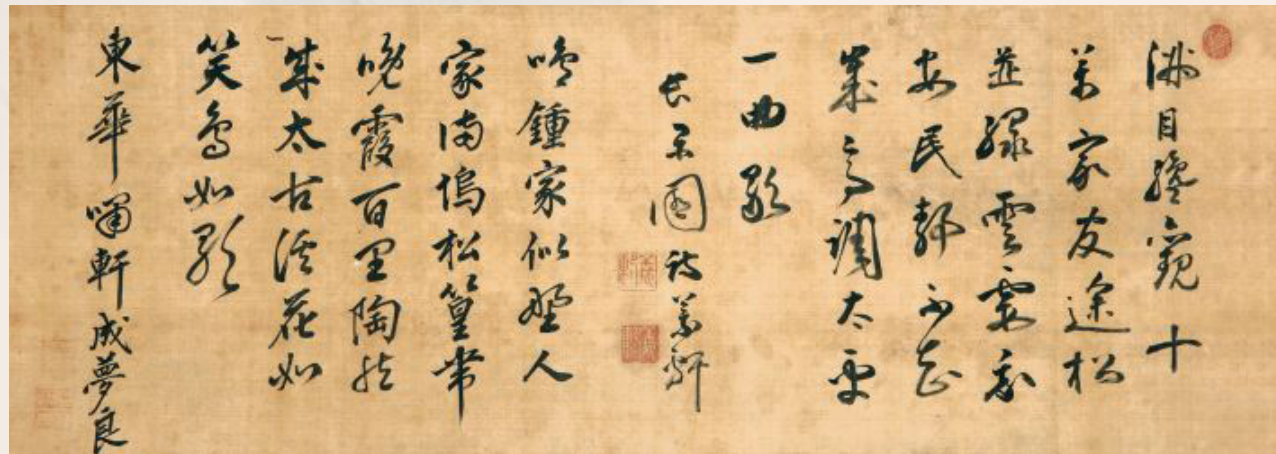
www.tongsinsa.com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의헌·성몽량필행서 成蒙良筆行書

Euiheon Seongmongryang Pil Haengseo
(Semi-cursive Script by Euiheon and Seong Moyngryang)



18세기 | 의헌義軒·성몽량成蒙良 | 서화書畫 | 비단에 묵서 絹本墨書 | 84.2×31.8cm | 부산박물관 소장

이 작품은 1719년(숙종45) 통신사 서기書記 성몽량成夢良(1673~1735)과 당시 조선통신사 일행을 맞이한 일본인 가운데 호를 의헌義軒이라 하는 사람이 함께 쓴 것으로, 칠언시七言詩 두 수가 쓰여 있다. 먼저 의헌이 <장한원시長閑園詩>를 적어 강호江戶시대의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고, 의헌의 노래를 받아 성몽량이 당시 일본의 태평한 풍경을 읊은 답시를 썼다. 이는 당시 한일 문사 교류의 생생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CONTENTS

04 권두칼럼
손재학 부경대학교 석좌교수
정사로서 바라본 2019 조선통신사
시모노세키 행사

06 성신교린
우에다 히로시 시모노세키 문화진흥재단 이사장
조선통신사 in 바칸마츠리

08 기획특집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 2주년을 맞이하며

14 조선통신사 24時
조정윤 부산광역시 문화정책협력관
전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문화예술 국제교류 플랫폼 新조선통신사

18 조선통신사 갤러리
이현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외교에 얽힌 글과 글씨

발행일 2019. 11. 11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편집위원 한태문, 백태현, 이주영
편집기획 문화유산팀 Tel 051.631.0858 www.tongsinsa.com
디자인 제작 코리아기획 Tel 051.204.7879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2019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손재학 부경대학교 석좌교수

정사로서 바라본 2019 조선통신사 시모노세키 행사



올해는 가을의 문턱까지 태풍을 맞으며 “이 태풍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겠지”를 반복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15~2019 전 지구 기후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이 인류역사상 가장 더웠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가파르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진작 예견했지만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도 아직 해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나 이를 국가가 무작정 강제하기가 어려워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고 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물꼬를 열어야 한다.

지난 8월말 조선통신사 정사로서 일본 시모노세키를 방문했다. 물론 부산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와 가게 되었지만 최근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선뜻 수락하기에는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나에게 조선통신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2015년 국립해양박물관이 공식 출범할 때 초대 기관장을 맡으며 국립해양박물관을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해양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조선통신사 유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운동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사실 막차 중에도 마지막 안내방송의 막차를 타게 된 셈이라고 할까, 정말 고마운 분들의 판정이 있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막차에 태워주신 것이다. 물론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이 일에 참여하고자 했던 국립해양박물관의 입장과 그 역할을 생각하면 정말 행운이었다. 그리하여 얻은 세계기록유산 그것도 유래 없이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추진한 일이 결실을 맺은, 그야말로 유엔이 강조하던 인류사적 의미를 세계에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대학생 탐방단을 이끌고 조선통신사 유적지를 돌아보기도 했던 나로서는 남다른 감회와 아울러 미래의 한일관계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 출처: 사진작가 문진우
▲ 원고집필자: 부경대학교 석좌교수 손재학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지구는 생명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대멸종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의 지구 현상은 여섯 번째 대멸종을 예견하고 있다. 바로 인류에 의해 야기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다. 얼음이 녹아 굽주리는 북극곰이 불쌍한 것만이 아니라 더 더욱 구원해야 할 굽주리는 인류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UN은 2천년대를 맞으며 우리가 해야 할 새천년 목표(MDGs)를 정해 두고 추진하였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미 시기 만료(2015년) 되었고, 이어 지속가능 목표(SDGs)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보다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것은 다분히 SDGs에 참여하는 각국의 자세와도 관련되지만 국제관계 속의 우리의 입장과의도 관련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돌려 한일관계를 보자. 우리는 일본에 대해 좋은 날 싫은 날 많은 날들을 함께하며 때로는 이웃으로 때로는 경쟁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걷고자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침략자를 가만 두고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장을 보며 역사를 이해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 역시 공존함을 안다.

역사란 무엇인가? 그 시대 그 자리에 존재했던 분들의 인식과 행동 아니겠는가?

2019년 조선통신사 정사의 역할을 맡아 일본 시모노세키시를 방문한 나를 비롯한 우리 일행은 현지에서의 환대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의 등장과 행동 하나하나를 관심있게 지켜보며 함께 손을 흔들어 주던 그 분들의 모습에서 나는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왜 인류유산이 되고 왜 한일 양국에게 교훈이 되는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모노세키시의 최대 축제의 시작이자 하이라이트가 된 조선통신사 행렬, 이제는 한일 양국의 축제에서 세계의 축제로 조선통신사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싶다.



우에다 히로시

시모노세키 문화진흥재단 이사장

조선통신사 in 바칸마츄리

시모노세키 시민에게 여름의 끝을 알리는 바칸 축제에서 올해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관계자 모두의 열의로 끊임없이 16번째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우호의 상징으로서 조선통신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통해 부산과 시모노세키 양 시민의 작은 문화교류가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는 혼슈의 최서단에 위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이 풍부한 항만도시입니다. 옛날 시의 중심부는 「아카마가 세키(赤間関)」라고 불렸고 이를 「赤馬関」라고 표기하기로 했던 것에서부터 「바칸」이라는 별명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본사의 수많은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어 시모노세키 조약을 비롯해 역사의 고비에 등장합니다.

1905년에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관부연락선(현재의 관부페리)이 취항하여 시모노세키는 일본에서 한반도나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는 주요 루트가 되어 동아시아 제국으로의 관문으로서 번성해 왔습니다. 시모노세키와 부산 양 도시는 예부터 지리적 연계가 강할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의 자매 관계 제후도 많아 문화·경제적 교류 역시 활발해져 1976년에 자매 우호 도시가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시모노세키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2004년 ‘바칸 축제’ 부터입니다. 이 축제는 거리 활성화를 목표로 1974년에 <노래와 춤, 모두의 야시장>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해 1978년에 시민 공모로 <제1회 바칸 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40만 명을 넘는 인파로 봄비는 아마구치현 최대의 축제로 성장하여 시모노세키 시민들에게 여름의 끝을 알리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8월 24일, 25일에 걸쳐 개최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은 약 4천 명의 무용수에 의한 <헤이케오도리 춤 축제>와 함께 축제의 주요 행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시모노세키시에서 160명이 참가해 화려한 조선왕조 시대의 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전통음악과 춤에 맞춰 약 400년 전 시대의 두루마리를 재현하며 시가지나 관문 해협변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재단은, 관부페리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시모노세키 시민회관 안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이 시작되면 재단 직원들도 행렬출발식에서 시민회관으로 돌아올 때 까지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다음 날에는 한일전통예술을 선보이는 ‘부산·시모노세키 만남스테이지’도 있기 때문에 꽤 힘겨운 이틀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한지 7년이 되지만, 처음 4년 간은 본부 근무로 실제 행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 별다른 애착은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혼슈상륙 기념비에서 현화식이 시작되어 출발식, 행렬로의 대동과 일련의 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초청으로 매년 5월에 부산에서 행해지는 조선통신사축제 참가, 해신제 관람과 목포에서의 조선통신사선 진수식 등에 참석하며 점차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칸마츄리



시모노세키 행렬

▲ 출처: 사진작가 문진우

올해 조선통신사 행렬은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적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 문제까지 얽힌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었습니다. 연일 각지에서 자치체 교류 중지 등의 보도도, 행렬 재현의 실사가 결정되자 예년에 없던 마스크로부터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페리가 도착했을 때부터 유다른 관심이 쏠릴 때마다 실전 행렬에서 예측불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말의 불안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시민들로부터 ‘이런 시기일수록 시민 차원에서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개최되어 정말 다행이다’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개성고등학교와 자매 학교인 시모노세키 상업고등학교의 학생이 올해도 봉사활동 스태프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환영의 의미를 담아 일본 전통 중이학을 한국의 행렬 참가자에게 건네주었더니 참가자 모두가 다정한 미소로 받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본에 와 주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음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이가 안 좋은 건 정치적 관계일 뿐이라는 걸 알고 안심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이 많아 좋은 국제교류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올해도 행사가 개최된 것에 큰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측 참가자 여러분, 여론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때는 행사 개최가 위태로웠던 가운데 실현을 위해 힘써주신 부경대 전 총장 강남주 선생을 비롯한 부산문화재단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에도시대 조선통신사는 ‘평화의 상징’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으로 파탄난 국교의 회복과 동시에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구축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더욱이 일본과의 교류가 상호이해를 깊게하고 양국의 문화발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조선통신사가 가르쳐준 평화우호를 위한 지혜를 바탕으로 양국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우호를 돈독히 해나가야 합니다. 조선통신사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평화우호에는 끊임없이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인정받은 조선통신사를 후세에 이어나갑시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 2주년을 맞이하며

2017년 10월 31일 한국과 일본 시간으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일 공동등재 확정된 그 날은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뿐만 아니라 재단 전 직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2019년 10월, 등재 2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며 등재 과정, 등재 이후, 등재에 힘쓴 사람들의 코멘트를 담아
가을호 소식지 기획특집을 구성해보았다.
등재의 역사적 순간부터 2주년까지 함께 살펴보자.

-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에 유네스코 공동등재 제안

2012.5.5.



2012년 5월 5일,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조선통신사 연고지역 전국교류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이 때 부산문화재단은 만찬회에서 조선통신사로 한국과 일본이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일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화답하면서 유네스코 등재의 첫 길이 열렸다.

유네스코 공동 등재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식

2014.6.16.



2014년 6월 16일, 한국 측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과 정재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총 37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달 앞선 5월 21일, 일본 측 추진부회는 먼저 설립된 상태였다. 13개 지자체와 3개 민간단체가 참여했고, 학술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12차례 학술위원회의 진행

2014.12.20.~2016.3.4.

2014년 12월 20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차 한·일 공동 학술회의가 열렸다. 유네스코 등재 기준은 크게 진정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비대체적인 유산일 것, 세계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산일 것, 관리계획이 서 있을 것이었다. 1차 학술회의를 비롯하여 총 12차례의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공동 신청서 제출

2016.3.30.

2016년 3월 30일, 부산중앙우체국에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으로 신청서 발송을 완료하였다. 한국 측 박승환 사무국장파 일본 측 아비루 마사오미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양국 언론이 지켜보고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2017.10.31.

2017년 10월 24일~27일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열렸다. IAC에서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사무총장은 승인 후 결과를 발표한다. 2017년 10월 31일, 한국과 일본 시간으로 새벽 1시를 넘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기쁜 소식이 떴다. 양국의 2006일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후 1주년 기념행사

2018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 간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조선통신사 기록물 특별전시(주최: 부산박물관), 참석자 교류 리셉션(주최: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선 진수식(주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술심포지엄(주최: 국립해양박물관) 총 4가지 행사로 구성되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특별전시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행사의 막을 연 것은 부산박물관에서 주최한 조선통신사 기록물 특별전시였다. 이 전시에서는 한·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약 200점이 전시되었다. 이는 재단이 일본 측 기록물 소장처에 대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협력을 추진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전시였다. 한·일 양국의 관계자 및 시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1주년 기념행사를 개막할 수 있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하 리셉션



특별전시 오픈식이 끝난 후 관계자 축하 리셉션이 열렸다. 한일 조선통신사 사업 관련 지자체 및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리셉션이었다. 이는 모두가 등재 1주년을 축하하고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었다. 당시 등재 이후의 조선통신사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안을 서로 간에 공유하였으며, 이를 新조선통신사 사업으로 구체화 하자는 제안에 상호 공감했던 시간이었다.

조선통신사선(재현선) 진수식



행사 둘째 날에는 조선통신사선 진수식이 진행되었다. 행사 당일 우천으로 인해 초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천 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예정된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당시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종식 목포시장, 재단 인솔 일본측 내빈 200여명 등 수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조선통신사 한일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심포지엄



행사 마지막 날을 장식한 것은 관계자 학술심포지엄이었다. 학술심포지엄의 특성상 참석인원(50여명)이 그리 많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으나, 조선통신사 관련 의미 있는 발표로 구성되어 추후 사업 진행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후 2주년 특별전시와 기념공연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시가 진행되었다. 이는 '조선통신사의 바다'라는 주제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조선통신사역사관 1층에서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20일까지 진행 되는 전시였으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산에서 출항한 조선통신사의 항해를 중심으로 한 전시로, 조선통신사선 모형, 항해와 관련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배 모형 전시는 역사관을 방문했던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별전시에 이어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은 유네스코 등재 2주년 기념 문화예술 공연인 '조선통신사 평화의 기억' 역시 기획하였다. 이는 11월 2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조선통신사역사관 2층 옥외공간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은 취타 및 전통연희, 국악, 뮤지컬, 마술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었고, 관람객들은 야외 잔디밭에 깔아놓은 돛자리에 앉아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유네스코 등재 2주년까지의 기록을 2019년 조선통신사 소식지 가을호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는 생각이 든다. 다가올 3주년도 기대가 되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힘쓴 사람들



박승환 청년문화팀장

2017년 10월 31일 새벽 5시, 불안감이 잠이 깼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2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 직원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이미 새벽 1시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었다. 발표가 나기 약 1주일 전부터 언론, 국내외 지자체 등에서 등재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치는 바람에 직원1명과 매일 밤 불침번을 서며 유네스코 홈페이지, 미국, 일본 언론들을 확인하면서 새벽까지 부산을 떨었지만 진작 발표가 나는 날에는 잠이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황망할 수가...

그리고 묘한 떨림이 진정 된 후에 유네스코 등재라는 제법 큰 일을 해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늦 장가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두고 주말마다 근 5년 간 일본을 150여 차례 다녀오면서 만들어 낸 성과이기에 더욱 그랬다.

십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주역 중에 한 명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웃게 된다.



김현승 경영지원팀원

조선통신사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 도쿄에 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조선통신사 행렬 참가자 모집” 글을 보았다. 행렬에 참가하면 도시락과 일당 5,000엔도 준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조선통신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 아르바이트 감각으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행사 당일 히비야 공원에 집결. 스텝 누군가가 어딘가로 가라고 하여 거기로 가서, 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줄 서라고 하는 곳에 줄을 서,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가 보니, 긴자(銀座)의 중앙 거리였다. 당시 온몸으로 느낀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조선통신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도쿄의 중심 긴자 중앙 거리를 전체 통제하고 이렇게 걸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첫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 우연한 기회에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 일을 하게 되고,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과업에 실무담당자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며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가면서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김효정 문화유산팀원

이걸 팀에서 진행한다고? 한일 양국의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일을 팀에서 추진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막연하고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 이후 팀장님과 선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어려운 단어들이 뻘뻘한 일본어 서류를 수십 번 번역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되겠구나 확신했다. 사실 몇 년간의 등재과정에 대한 소회를 짧은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 기간이 아닌 한일 양국 민간기관에서 등재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과 전면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회의, 기념 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써준 팀원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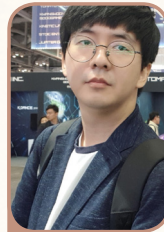
김지혜 문화유산팀원

2017년 10월 31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때의 감동과 기쁨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민간차원에서 국내 단독이 아니라 한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킬 수 있을까. 시작부터 반신반의 했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학술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다. 한일을 왔다갔다 하며 수십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마냥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양국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록물들을 선정하는 데에 생긴 문제들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빠듯 거리가도 했지만 이것마저 양국의 믿음으로 모두 극복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할 수 있었다. 양국 실무자들 간의 믿음과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일 공동으로 민간차원에서 이 일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앞으로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를 토대로 한일 간의 문화 교류가 끊이지 않고 냉랭한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학술위원님들, 추진위원님들, 팀장님과 우리 팀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강민규 문화유산팀원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알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이 문득 떠오른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준비 과 정부 등재되기까지 참여해 온 일련의 과정들을 떠올리면, 보람되고 의미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으로 국내외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의견을 나누거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점점 등재에 대한 열정이 커져갔다. 이러한 과정 중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 등 외에 상호 간에 참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으며, 일련의 과정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가 소중하게 기억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참된 마음으로 교류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명운 청년문화팀원

2004년 대학생시절, 특색 있는 부산축제를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막상 참여하여 축제를 즐겨보니 단순히 특색 있고 재미있지만 한 축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뜻깊은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점에 더욱 흥미를 느껴 매년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런 나의 노력을 알았는지 어느새 나의 위치는 자원봉사자에서 스텝이 되어 있었다. 바뀐 위치만큼 더욱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일본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양국을 오가며 행사를 하는 동안 조선통신사라는 매력에 푹 빠진 나는 결국 직원이라는 자리를 손에 넣었다. 이후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운영직을 맡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를 위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던 날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등재가 확정되어 뭉뚱이 기뻐지만 등재직전 이루어진 인사이동으로 인해 확정순간의 기쁨과 등재기념 행사를 다 같이 노력했던 동료들과 공유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에는 비록 작지만 확실한 내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김진섭 청년문화팀원

조선통신사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 과거 조선통신사가 수행했던 평화의 사절단 역할을 현대에 다시 재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사업을 하며 뵈었던 많은 한국 및 일본 연고지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 세계 기록유산등재라는 큰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이어지길 기원한다.



양주원 예술지원팀장

2012년 현 문화유산팀에 근무 중 한국, 일본, 에스토니아 전문가 9명을 모시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일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담당자로서 한일공동 등재의 타당성으로 타진하기 시작했다. 중앙박물관, 강원도 한림대학교, 한국 유네스코위원회, 국내외 전문가 등을 방문하여 ‘무형유산’, ‘유형유산’, ‘기록유산’을 등재방법과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결과 최종 ‘기록유산’으로 등재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단에서 최초 담당자로 활동하던 도중에 인사이동으로 예술지원팀에 근무하면서 ‘정말 등재가 가능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었지만 최종 등재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내외 행사참여와 관심을 가져왔으며 최종 등재결과 발표일에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올해 2019년 10월 2일 재단 직원 워크숍에서 「재단 10주년 기념」 유네스코등재 유공 표창장을 받으면서 직접 담당하고 참여한 임·직원 분들과 뒤에서 관심을 가졌던 직원들의 노력이 한 편의 영화같이 지나갔다. 요즘 국가 간의 감정의 골이 생겨있지만 민간교류의 차원에서 교류행사는 지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조선통신사’에 대해 나의 뜨거운 마음은 계속 진행형이다.



김에인 문화공간팀원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분들의 헌신이 묻어 있음을 기억한다. 이는 무대 앞에서 조명 한번 받지 못하고, 땀에 젖고 두 다리 통통 붓도록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값진 결과임을 강조하고 싶다. 뜻깊은 일이지만, 녹록지 않은 과정과 반복에 거쳐 함께한 직원과 스태프분들께 결국 당신 덕분이었음을 감사함으로 전해드리고 동시에 보람을 나누고 싶다.



최지형 청년문화팀원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까마득하고 내 기억 속에서조차 잡히지 않는 단어가 최근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다. 이것이 사실... 실제로 여러 날 잠을 설치고, 주말도 없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노력했던 많은 동료들에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무겁다. 운 좋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 되던 당시 현 문화유산팀 막내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 하는데 조선통신사가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이어 갈 대화가 되길 바란다.



조정윤

부산광역시 문화정책협력관
(전)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문화예술 국제교류 플랫폼 新조선통신사

여행하는 인간, 예술가의 문화이동

호모 비아트르(Homo Viator), 여행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여행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예술은 특히 여행과 좋은 파트너다. 독일의 세계적 대문호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의 영감을 통해 그의 역작 ‘이탈리아 기행’을 출간한다. 괴테에 있어 여행은 그의 삶과 예술의 전환기가 되었다. 추상미술의 거장 바실리 칸딘스키.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인 그는 독일로 건너가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를 여행하며 현지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음악신동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유럽 전역을 연주 여행 한다. 현지에서 얻은 체험은 모차르트의 예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문학, 회화, 기예 등의 분야에서 장기간 일본 기행을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바로 1607년부터 1811년간 12회에 걸쳐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통신사 사행에 참여한 문인과 화가들이다. 흔히들 조선통신사를 한류의 원조라 이야기 한다. 조선통신사는 공식 외교사절단이었지만, 당시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더욱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문화이동 관점에서 보면 조선통신사는 해외 창작 레지던스 사업의 국내 원조라고도 할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 비전2030과 함께 할 新조선통신사

부산문화재단은 과거 조선통신사 문화교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구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확장하며, 부산지역 예술가들의 일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 新조선통신사이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거리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문화예술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내에 잘 알려진 일본의 예술기관, 예술 축제와의 교류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발표한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2030에도 과거와 미래를 잇는 ‘新조선통신사 교류사업 다각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의 우호 교류 협약기관인 요코하마 Bank Art1929와 레지던시 교류, 일본의 세계적인 시각예술축제 참가를 통한 부산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확장, 시즈오카의 다이도게 월드컵에 부산의 거리예술가들을 파견하여 세계 진출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실천과제로 하고 있다.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아시아 포럼, 네트워크의 확장

올 8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아시아 포럼에 한국의 대표로 부산문화재단이 참가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 소개'와 함께 '新조선통신사 한일 문화예술교류 플랫폼 구상'을 발표하였다. 당시 포럼에는 아시아 각국의 시각예술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부산문화재단의 사례발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세토우치국제예술제의 키타가와 후라무 총괄 디렉터는 차기 예술제에 부산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희망하였다.

한편,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참가는 향후 부산문화재단이 추구해야 할 新조선통신사를 통한 국제적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방향성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은 호주를 대표해 참가한 Asialink¹⁾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Asialink Arts의 디렉터인 Pipa Dickson은 최근 개인적으로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빅토리아 자매도시 예술가 교류, 2021년 한·호주 외교수립 60주년 기념 부산-호주 공동사업, 아시아 항구도시 문화예술 컨퍼런스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新조선통신사는 이제 한일교류를 넘어 호주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토우치국제예술제를 통해 연결된 말레이시아 Penang Art District의 네트워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페낭의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지타운은 벽화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 아트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Penang Art District의 고문이자 변호사 출신의 아트컬렉터인 Lee Khai는 부산-페낭 조지타운간 스트리트 아트 교류를 희망하였다. 향후, 부산 예술가들의 작품이 조지타운 벽화거리를 장식하고, 현재 페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리투아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스트리트 아트 작가 어니스트 자카르빅(Ernest Zacharevic)의 작품이 부산의 거리를 수놓기를 기대해 본다.



1) 아시아링크(Asialink)는 1990년 호주와 아시아 국가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설된 단체로 호주 정부와 마이어(Myer)그룹, 멜버른 대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화예술뿐 아니라 정부, 기업, 사회공헌, 언론등 사회 전문분야에 걸쳐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찾고 전략적 연대를 확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부산-시즈오카 거리예술 페스티벌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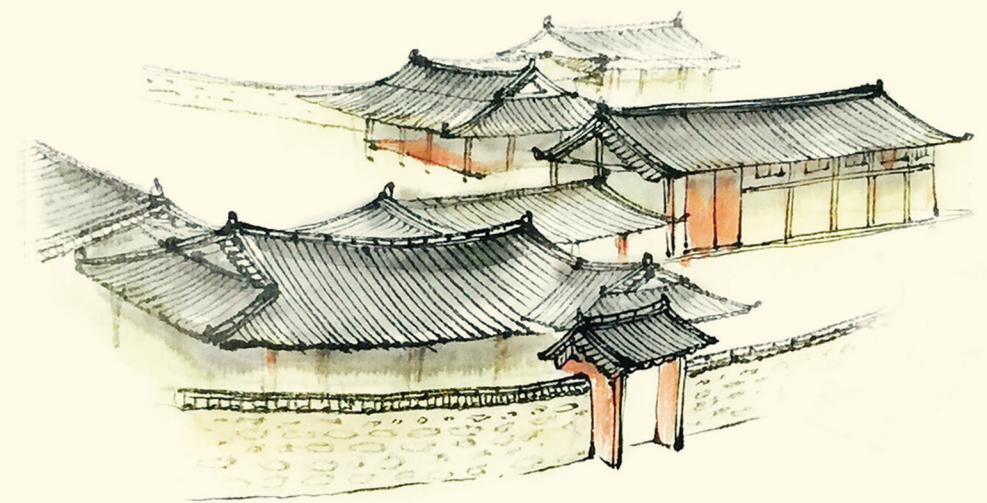
부산-시즈오카 간 거리예술 교류 역시 결실을 맺고 있다. 부산-시즈오카는 201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후 4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부산문화재단은 공식 초청되었다. 일회성 교류로 끝내기를 너무도 아쉬워한 시즈오카시의 요청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시즈오카시는 新조선통신사를 통해 더욱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시즈오카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예술 콘텐츠 '시즈오카 다이도게이 월드컵'에도 부산의 거리예술단체 3팀이 올 11월 공식초청을 받아 참가한다. 1992년부터 시작된 다이도게 월드컵 인 시즈오카(DWCS)는 '도시가 극장이다'라는 컨셉으로 매년 1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아시아 최대의 거리 축제 중 하나이다. DWCS는 월드컵, 온, 뉴커머스, 프린지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여기에 올해부터 부산의 거리예술가들을 위한 새로운 부문이 신설되었는데, 이름하여 '페스티벌 교류부문'으로 부산-시즈오카 커넥션이다.

부산의 거리예술가들은 행사기간 중 전 세계 거리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해외진출의 교두보로서 DWCS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시즈오카시는 양 도시간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향후 공동으로 에딘버러 축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新조선통신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新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이동(cultural mobility)은 향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부산의 예술가들은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창작의 영감을 얻으며, 현지인들과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新조선통신사는 국가 간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을 이해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과거 조선통신사의 교류를 통한 성신교린의 정신은 미래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新조선통신사로 이어질 것이다.



외교에 얽힌 글과 글씨



이현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1617년(광해군9) 부상록扶桑錄을 집필한 이는 통신사 오윤겸吳允謙의 종사관이었던 석문 이경직石門 李景稷으로, 동생인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과 더불어 광해군과 인조 시대에 우리나라 외교의 선봉에 있었다. 더욱이 손자인 반곡 이덕성盤谷 李德成은 동래부사로 재임하여 대일 외교의 최전선에 있기도 하였다. 이 집안은 형제 중 누가 먼저 작고하면 남은 가족이 조카를 거두어 한집 같이 지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가문 대대로 외교가이면서도 글과 글씨에 능하여, 동국진체의 비조로 원교체圓峯體를 수립한 이광사李匡師를 배출하였고,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비문들이 이 집안 사람들의 붓끝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에 등재된 유물 가운데 이경직李景稷의 「이석문부상록」 「李石門扶桑錄」은 조선통신사 외교와 관련한 이른 시기의 자세한 기록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글씨에도 DNA가 있나 보다. 이 집안의 글씨는 선대의 글씨와 후손의 글씨가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이는 선대의 글씨를 모본模本이나 체본體本으로 삼아 글씨를 익히고 연마한 까닭으로 보인다. 요즘의 학교에서에서의 판서나 교과서 글씨가 가장 눈에 익지만 당시로서는 집안 어른의 잘 쓴 글씨가 본이 되었던 것이다. 이 집안이 글씨를 잘 쓰고 누대에 걸쳐 필력이 전승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이래 소론으로 소수 당파가 되어 은둔과 대가족 유습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집안의 곡절 많은 역사는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의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에서 비롯되었다. 인조대왕이 장유張維, 이경전李慶全, 조희일趙希逸과 이경석李景奭에게 명하여 삼전도비三田渡碑의 글을 짓게 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다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임금의 강제로 짓게 하였다. 세 신하가 가지못하여 다 지어 바쳤는데 조희일趙希逸은 고의로 글을 거칠게 만들어 채용되지 않기를 바랐고 이경전李慶全은 병 때문에 짓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이경석李景奭의 글을 썼다.

장유張維와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3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청나라에 들여보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택하게 하였다. 범문정范文程 등이 그 글을 보고, 장유張維가 지은 것은 인용한 것이 온당함을 잃었고 李景奭이 지은 글은 쓸 만하나 다만 중간에 첨가해 넣을 말이 있으니 조선에서 고쳐 지어 쓰라고 하였다. 인조대왕은 이경석李景奭에게 명하여 고치게 하였다. 왕명으로 오랑캐의 수장을 천지라 칭하고 우리 임금의 부덕을 알리는 글을 울분을 억누르고 지은 글이다.



이경석李景奭이 연로하여 나라에서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는데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그 서문을 지어라 하니 「의호수가 강宜乎壽而康 - 마땅히 오래 살고 편안하라」는 뜻의 글을 지어 올렸다. 이 글은 주자朱子가 남송南宋이 멸망할 때 송의 흥종欽宗이 금나라에 항복하는 표문表文을 지어 올린 손적孫覿을 비꼬아 한 말로 이로부터 정치의 중심 세력인 노론으로부터 경원시 되었다. 이경석이 가지못해 지은 글이 당시에는 세부득의 현실에서 동정이 있었으나 송시열의 통박 이후 세월이 지날수록 주홍글씨로 남는다.

이경직李景稷의 아들 이정영李正英은 미수 허목眉叟 許穆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서篆書와 주서籀書 [한자漢字的 옛 자체字體의 하나이다. 보통 대전大篆이라고 함]에 가장 뛰어난 이로 「민기신도비」 「閔箕神道碑」, 「이순신명량대첩비」 「李舜臣鳴梁大捷碑」, 「영안위홍주원비」 「永安尉洪柱元碑」, 「호판이경직비」 「戶判李景稷碑」 등을 남겼다.

이경직李景稷의 손자인 이덕성李德成은 8세에 양친을 여의고, 숙부 이정영李正英에게 양육되었는데, 서법을 이어 받아 『봉래별장첩』 『蓬萊別章帖』에서 정후주鄭後周는 "뛰어난 글씨는 집안을 이었다네[健筆承家聲]"라고 했으며, 한세보韓世輔는 "서법은 이 집안의 내력이라네書法舊家聲"라고 했다. 이덕성李德成은 왕실의 주문에 의하여 『자의대비옥책초본』 『慈懿大妃玉冊草本』을 썼으며, 『신수현릉신도비』 『新竪獻陵神道碑』도 그의 필력을 빌린 것이다.

이경직李景稷의 증손 북곡 이진유北谷 李眞儒가 1730년 고령의 나이에 문초를 당하자 이들 일가들은 일제히 벼슬을 버리고 강화도江華島로 들어가 살아갈 터를 잡은 후, 출사出仕를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 힘썼던 그 후손들로 특히 뛰어난 이들을 육진팔광六眞八匡으로 불렀다. 특히 이들 중 이덕성李德成의 숙부 이정영李正英의 증손인 이광사李匡師는 글씨로, 그의 손자인 이광려李匡呂는 문장으로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들었다. 이진수李眞洙의 아들인 이광려李匡呂는 당시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일찍부터 책을 통하여 고구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광사李匡師는 박학樸學과 실질을 추구하던 윤순尹淳의 학풍과 서풍을 이어받아 동국진체를 구축한 인물이다. “서예의 묘경妙境이 귀신의 조화처럼 공교하고 묘하여 우리나라 서법의 누수를 일소했다” 라며 스승을 높이 평가한 이광사李匡師는 스승 윤순尹淳이 세상을 떠나자 제문祭文 끝에 “알아줄 이 없으니 자귀질도 그만두고 거문고 줄도 끊으려다”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 서법에서의 동국진체나 그림에서의 진경화법은 한순간 창안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미의식의 지평은 대대손손代代孫孫, 그리고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오랜 가르침과 배움이 누대에 걸쳐 가풍家風과 학풍學風으로 형성된 결과이다. 조선통신사기록물 역시 수백 년에 걸친 문화외교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른 바 국풍國風이 담겨진 기록들이다. 통신사의교와 관련된 목적 한 점 한 점에는 당대에 품미했던 선인들의 명문장과 뛰어난 서법뿐 아니라 갈 끝을 붓끝으로 바꾸어 선린善隣을 이끌어 왔던 선대들의 통찰력과 결단력이 또한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外交に絡まる文と字



李炫周 文化財廳 文化財鑑定委員

1617年(光海君)扶桑録を執筆した人は通信使吳允謙の従事官だった石門李景稷で、弟の白軒李景奭とともに光海君と仁祖時代外交の先鋒であった。さらに孫の盤谷李徳成は東萊府使に在任し、対日外交の最前線にいた時もあった。この家系は兄弟の中で誰かが先に亡くなると、残りの家族が甥を引き取って一緒に暮らしたことで有名だ。代々に外交家でありながら、文と字に上手い、東國眞體の鼻祖で圓嶠體を樹立した李匡師を輩出し、韓国の少なからぬ碑文がこの家の人々の筆先から生まれた。

現在、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朝鮮通信社記録物」に登録された遺物の中で、李景稷の「李石門扶桑録」は早い時期の朝鮮通信使外交に関する詳しい記録ということで定評になっている。

書体にもDNAがあるようだ。この家の書体は先代と子孫の書体が判別しにくいほど似ている。これは先代の字を模本や體本にして字を学び、磨きかけたからとみられる。この頃は学校での板書や教科書の字が最も目に付くが、当時では家の中によく書かれた大人の字が見本となったのだ。この家が字を上手に使い、累代にわたって筆歴が伝承されたのは様々な理由があるだろうが、白軒・李景奭以来、少論で少数党派になり隠遁と大家族遺襲をそのまま保ったためとみられる。

この家系の迂餘曲折の歴史は白軒・李景奭の三田渡碑文から始まった。仁祖大王が張維、李慶全、趙希逸と李景奭に命じて三田渡碑の文を作るようにし、彼らは上疏して遠慮したが、王が強制的に作らせた。やむを得ず3人は文を作ったが、趙希逸は採用されないことを願ひ故意に文を荒く書いたし、李慶全は病気で作れなかったため、ついに李景奭の文が選ばれた。

王は張維と李景奭が作った三田渡碑文を清国に送り、彼らをして選ばせた。范文程などがそれを読んで、張維の文は引用したものが穏当を欠き、李景奭の文は使えるが、中間に付け加える言葉があるため朝鮮で書き直すように言われた。仁祖大王は李景奭に書き直すように命じた。王命で野蛮人の首長を「天子」と称し、王の不徳を知らせることを鬱憤を抑えて作った文である。王命で野蛮人の首長を賤子と称し、王様の不徳を知らせる文を鬱憤を抑えて作った文である。



李景奭が老いて国から几杖を贈り、尤庵・宋時烈が「宜乎壽而康・須らく長生きし、安らかでやれ」という意味の文を作った。この文は朱子が南宋が滅亡したとき、宋国の欽宗が金国に降参する表文を作った孫觀を皮肉った言葉で、その以降から政治の中心勢力である老論から敬遠された。李景奭が仕方なく書いた文章が当時では同情があったが、宋時烈の攻撃以後年月が経つにつれ消えない緋文字で残る。

李景稷の息子である李正英は眉叟許穆と共に国の篆書や籀書(漢字の古字體の一つ。普通、大篆と言われる)に最も優れた人で『閔箕神道碑』、『李舜臣鳴梁大捷碑』、『永安尉洪柱元碑』、『戸判李景稷碑』などを残した。

李景稷の孫である李景成は8歳で両親を亡くし、叔父李正英に育てられたが、書法を受け継いで『蓬萊別章帖』では鄭後周が「優れた筆力は家代々に引き継いでいる(健筆承家聲)」、韓世輔は「書法はこの家の来歴だ(書法舊家聲)」と言及した。李徳成は王室の命により『慈懿大妃玉冊草本』を書き、『新豎獻陵神道碑』も彼の筆力を借りたものである。

李景稷の曾孫である北谷・李眞儒が1730年、高齢で審問を受けられると彼らは一斉に官を辞めて江華島に行って生き、出仕を断念してひたすらに学問にだけ尽力した子孫の中で最も優れた者たちは六眞八匡と呼ばれた。中でも、李徳成の叔父である李正英の曾孫・李匡師は文字で、彼の孫・李匡呂は文章で当代最高と評価された。李眞候の息子である李匡呂は当時、日本との活発な交流の中で早くから本を通じてサツマイモに対する幅広い知識を習った人物でもある。

李匡師は樸学と実質を求めた尹淳の学風と書風を受け継ぎ東國眞體を築いた人物である。「書道の妙境が鬼の造化のように巧妙で、わが国の書法の陋習をなくした」と師匠を高く評価した李匡師は、師匠の尹淳が世を去ると祭文の末に「認める者がいないのでしょうなで木を削ることもコムゴも止める」と嘆いた。

書法における東國眞體や絵における眞境は一瞬で創案されたものではない。このような美意識の地平は代々孫孫、そして師資相承の長年の教えと学びが累代にわたって家風と学風に形成された結果である。朝鮮通信使記録物も数百年にわたる文化外交によって形成された国風が収められた記録である。

通信使外交に関する墨跡一点一点には、当代に風靡した先人の名文と優れた書法だけでなく、刀先を筆先に変えて善隣を導いてきた先代の洞察力と決断力があつた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瀬戸内国際芸術祭 アジアフォーラム、ネットワークの拡張

今年8月に世界的に有名な瀬戸内国際芸術祭アジアフォーラムに韓国の代表として釜山文化財団が参加した。釜山文化財団は「朝鮮通信使日韓文化交流事業の紹介」と「新朝鮮通信使日韓文化芸術交流のプラットフォーム構想」を発表した。当時フォーラムにはアジア各国の視覚芸術関係者で賑わっていて、釜山文化財団の事例発表は日本だけでなくアジア各国参加者の良い反応を引き出した。瀬戸内国際芸術祭の総括ディレクターである北川フラムさんは次期芸術祭に釜山の作家たちの積極的な参加を希望した。

一方、瀬戸内国際芸術祭の参加は今後、釜山文化財団が追うべきである新朝鮮通信使を通じた国際的文化芸術ネットワーク構築という方向性を提示した。

釜山文化財団は、オーストラリアを代表して参加したAsialink¹⁾と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AsialinkArtsのディレクターであるPipa Dicksonは最近、個人的に釜山を訪問し釜山-ビクトリア姉妹都市芸術家の交流、2021年韓国・オーストラリアの外交樹立60周年記念に釜山-オーストラリアとの共同事業、アジアの港湾都市の文化芸術会議など多様な協力事業を提案した。新朝鮮通信使はすでに韓国と日本の交流を超えてオーストラリアまで拡大する可能性を示している。また瀬戸内国際芸術祭で繋ったマレーシアPenang Art Districtのネットワークにも注目すべきである。

ペナンの世界文化遺産都市のジョージタウンは、壁画を中心としたストリートアートが世界的に話題となっている。Penang Art Districtの顧問であり弁護士出身のアートコレクターのLee Khaiは釜山-ジョージタウンの間、ストリートアートの交流を希望した。今後、釜山の芸術家たちの作品がジョージタウン壁画通りを飾り、現在ペナンを中心に活動中のリトアニア出身の世界的なストリートアート作家である(Ernest Zacharevic)の作品が釜山の街を彩ることを期待したい。



1) Asialinkは1990年にオーストラリアとアジア諸国の理解と協力を促進するために設立された組織であり、オーストラリア政府、マイヤーグループ、メルボルン大学の支援を受けている。文化芸術だけでなく、政府、企業、社会貢献、メディアなどの社会全分野にわたってアジア諸国との協力計画を見つけ、戦略的連帯を拡大している機関である。

釜山と静岡、ストリートアートのフェスティバルの交流

釜山と静岡間のストリートアート交流も実を結んでいる。釜山と静岡は2016年徳川家康薨去400周年記念事業の一環として、朝鮮通信使行列再現をメインプログラムで構成し、釜山文化財団は公式的に招待された。一回限りの交流で終わりをあまりにも惜しんだ静岡市の要請で、現在も継続交流が続いている。釜山文化財団と静岡市は新朝鮮通信使を通じて、さらに交流拡大している。

静岡市の世界的有名なストリートアートのコンテンツ「静岡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にも釜山の団体3チームが今年11月に公式招待を受け、参加する。1992年から始まっ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DWCS)は、「まちは劇場」というコンセプトで、毎年150万人以上の来場者が訪れるアジア最大のストリートフェスティバルの一つである。

DWCSは、ワールドカップ、オン、ニューコマース、フリンジの4つの部門に分かれている。ここで今年から釜山のストリートアーティストのための新しい部門が新設された。命じて「フェスティバル交流部門」で釜山と静岡のコネクション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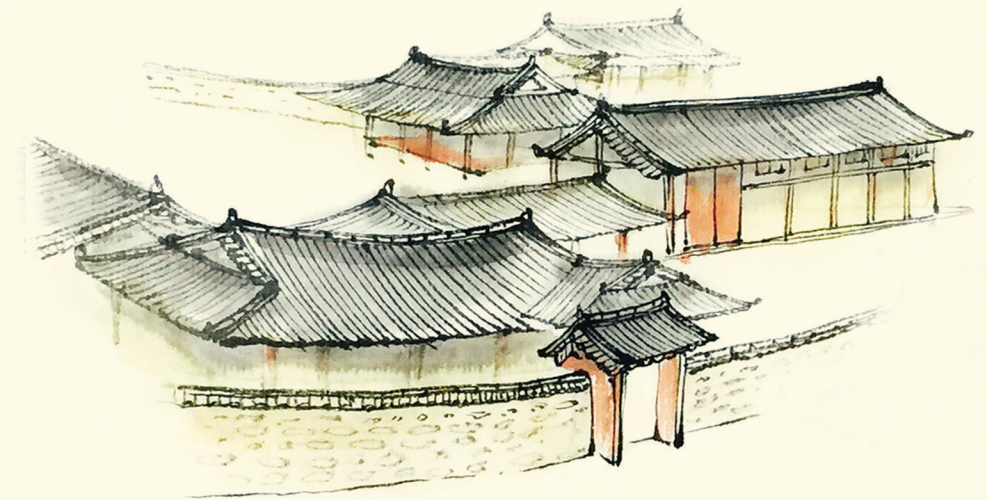
釜山のストリート芸術家たちはイベント期間中、世界中のストリートアーティストと交流し、海外進出の足がかりとしてDWCSを活用することになる。

釜山文化財団と静岡市は両都市間のストリートアートを中心に今後、共同でエディンバラ・フェスティバルの進出を計画している。

新朝鮮通信使の活発な活動を期待する

新朝鮮通信使を通じた韓国と日本の文化芸術家の文化移動(cultural mobility)は今後さらに活発になるだろう。釜山のアーティストは国際交流ネットワークの拡大で、創作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つつ地元の人々との交流を文化芸術の社会的役割を果たす。

最終的に新朝鮮通信使は、国家間の文化的相対性と多様性を理解して、経済的、政治的、社会的葛藤の克服に寄与する。過去の朝鮮通信使の交流を通じた誠信交隣は、未来には全世界を舞台とする文化芸術家の新朝鮮通信使につながるだろう。





書禎潤

釜山広域市文化政策協力官
(前)釜山文化財団の文化遺産チーム長

文化芸術国際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 新朝鮮通信使

旅する人間、芸術家の文化移動

ホモヴィアトロ(HomoViator)、旅する人間である。人間は旅を通して世界と疎通する。古今東西を問わず文化芸術は特に旅と良いパートナーである。ドイツの世界的大文豪ゲーテはイタリア旅行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で、彼の力作「イタリアの紀行」を出版する。ゲーテにとって旅は彼の生と芸術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なった。抽象美術の巨匠ワシリー・カンディンスキー。ロシアのモスクワ生まれの彼はドイツに渡り、イタリア、フランス、オランダの主要都市を旅行し、地元の芸術家たちと交流して作品活動をしたことで有名である。音楽の天才モーツァルトは、6歳の時からヨーロッパ全域にわたって演奏旅行をする。現地で得られた経験は、モーツァルトの芸術の世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

その昔、韓国にも文学、絵画、技芸などの分野で長期間、日本紀行を通じた文化交流が活発に行われた。まさに1607年から1811年の間、12回にわたって日本に派遣された朝鮮通信使の使行に参加した文人と画家である。俗に朝鮮通信使を韓流の元祖と言われる。朝鮮通信使は、公式の外交使節団だったが、当時では文化芸術人たちの交流がより一層注目を浴びたからである。今日のアーティストの文化移動の観点から見ると、朝鮮通信使は、海外創作レジデンシー事業の国内元祖とも言える。



釜山文化財団のビジョン2030と協力する新朝鮮通信使

釜山文化財団は過去朝鮮通信使の文化交流を現代的に再解釈する。日本の朝鮮通信使縁の地を中心に文化芸術の交流を拡張し、釜山地域の芸術家たちの日本進出を積極的に支援している。いわゆる文化芸術新朝鮮通信使である。公演芸術・視覚芸術・ストリートアート・文学など様々な分野で韓国と日本の文化芸術交流の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機能するものである。国内でよく知られている日本の芸術機関、芸術祭との交流を積極的に活用して釜山の文化芸術家たちが世界に進出することを目標とする。最近発表された釜山文化財団のビジョン2030にも、過去と未来をつなぐ「新朝鮮通信使交流事業の多角化」を主な戦略課題とした。釜山文化財団の友好交流協定機関である横浜Bank Art1929とのレジデンシー交流、日本の世界的視覚芸術祭に参加することで釜山芸術家たちのネットワークの拡張、静岡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に釜山のストリートアーティストを派遣し、世界進出を図ることを主な実践課題としている。

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に取り組ん人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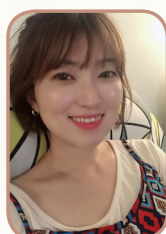
朴承桓
青年文化チーム長

2017年10月31日午前5時、不安で目が覚めた。携帯を確認したら夜明け2時から留守番が数々あった。職員のメッセージを確認したら、既に夜明け1時に朝鮮通信使記録物の世界記憶遺産登録が確定されたことだ。発表の約1週間前からマスコミや国内外の自治体などで登録を確認する電話が相次いだため職員1人と毎晩不審番に立ち、ユネスコのホームページ・アメリカ・日本のマスコミを確認しながら夜明けまでいたが、実際に発表の日には寝たのだ。こんなに虚しいとは.....そして妙な緊張感が落ち着いた後、「ユネスコ登録」という大きな仕事をやったのだという気がした。遅く結婚して生まれたばかりの息子と離れ5年間週末ごとに日本を150回以上往復しながら作り出した成果なのでさらにそうだった。数年後ある日、朝鮮通信使記録物をユネスコに登録した主役の一人が父親だったことに気づいた息子を想像すると、笑ってしま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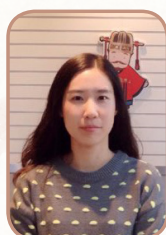
金玄昇
経営支援チーム員

朝鮮通信使と初めて出会ったのは2007年10月に遡る。大学卒業の前に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東京に居た頃、ネットで「朝鮮通信使行列参加者募集」という投稿を目にした。行列に参加すると弁当と日当たり5000円が支給されるとのこと。当時は朝鮮通信使が何かすら分からず一日のアルバイト感覚で周りの友達と一緒に参加した。行事当日、日比谷公園で終結。スタッフの誰かにどこに行くように言われればそこにいき、言われた服を着て、言われた通り並び、言われた通り歩けば銀座の中央通りにいた。当時全身で感じた戦慄は今でも忘れられない。「朝鮮通信使」が一体どんなもので東京の中心、銀座の中央通りを全部車両通行止めし歩くことができるのか。そんな出会い以来韓国に戻り偶然朝鮮通信使韓日文化交流事業の仕事に就き、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という歴史に残る事業に実務担当で参加し良い成果を出せたことは個人的に無限な栄光であり、甲斐のあるものだった。朝鮮通信使で今まで多くの人と良い絆を作り、今までもその関係を深めながら朝鮮通信使の「誠信交隣」の精神を継承している。



金孝貞
文化遺産チーム員

これをチームで進行すると？
日韓両国の朝鮮通信使記録物をユネスコ記憶遺産に登録させることをチームで推進すると決定した時、一番最初に思ったことだ。漠然だし、それができたらどうかという考えが支配的だったのは率直な心境だ。その後、チーム長や先輩は目が回るほど忙しくなった。私は聞いたこともない難しい単語がぎっしり詰まった日本語の書類を数十回も翻訳し、時間が経つにつれ、あ！これはできたらと確信した。実際、数年間の登録過程に対する感想を短い言葉で表す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一つ確実なのは国家機関でなく両国の民間機関がユネスコに登録させたのは我々皆が自慢できることだ。またスポットライトを浴び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会議、記念行事など見えないところで共に力を尽くしたチーム員の苦労も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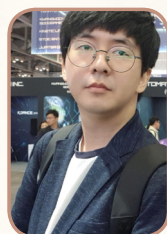
金智恵
文化遺産チーム員

2017年10月31日。一生忘れられない日だ。その時の感動と喜びは言葉にできない。最初は朝鮮通信使記録物を民間で、韓国単独でもなく日本と共同で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せることが出来るのか、疑い半分で初めて事業だった。それでも学術委員会や推進委員会を発足して本当に始まるんだと実感した。韓国と日本を行き来しながら数十回の会議を立ち、坦々と進んだわけではない。政府での両国の問題や記録物を選定する過程でできたトラブルを始め色んな出来事があったがこれすらも両国の信頼で克服し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として登録することができた。両国の実務者の間での信頼と熱情がなかったら不可能だったんだろう。
そして、共同で、民間で、これを成し遂げたことを誇らしく思う。これからも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日韓共同登録を元に両国の文化交流が絶えず今の険しい関係を回復するにあたって大きい役割を果たしてほしい。最後に学術委員の皆様、推進委員の皆様、チーム長と私たちチーム員みんなの努力に感謝を贈りたい。



姜珉奎
文化遺産チーム員

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可否を知るため、焦りながら待っていた瞬間が思い浮かぶ。世界記憶遺産登録の準備過程から登録されるまで、参加してきた一連の過程を考えるとやりがいがあり意味のあることがパノラマのように流れる。朝鮮通信使の文化交流事業で国内外の様々な人と出会い意見を交わしたり、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に携わる多様な仕事を進めながらますます登録に対する情熱が上がってきた。このような過程の中で互いに情報を交流し、意見を交換することなどの他にも相互の真心が本当に重要なものだということが再び知り、一連の過程が実に有意義で大切な時間であったと思った。
これからも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の価値と意味が大切に記憶され、広まるようにお互いに真の心で交流し努力していくことを願う。



金明澗
青年文化チーム員

2004年、大学生の時、特色ある釜山の祭りを体験してみようという考えからボランティアとして参加したのがその始まりだった。実際に祭りに参加してみると単純に特色があって面白い祭りではなく歴史的な意味を持った行事だということを知り、そのことでさらに興味を感じて毎年熱心に参加した。そんな私の努力を知ったのかいつの間には私はボランティアからスタッフになっていた。位置が変わった分責任感とやりがいを感じながら活動し、以後は日本行事にも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両国を行き来しながら行事に参加する間、「朝鮮通信使」という魅力にはまった私は結局、釜山文化財団の職員となった。その後、朝鮮通信使歴史館の運営職に就きより深く勉強し、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の共同登録のため微弱ながら役に立ちようと努力する日々が続いた。
そしていよいよ登録が確定して飛び上がるほど嬉しかったが、直前の人事異動によって確定の瞬間と登録記念行事と一緒に努力した同僚と共有できなかったのが残念でならない。しかし、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の日韓共同登録にはたとえ小さくとも確実に私の努力が込めら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ためその理由一つだけでも十分な誇りとやりがいを感じる。



金貞愛
青年文化チーム員

朝鮮通信使事業を進めるなか、大きいやりがいを感じた。過去朝鮮通信使が果たした平和使節団の役割を現代に再現する栄光の場に一緒にしたのが個人的に光栄だった。事業でお会いした多くの韓国及び日本の関係者の方々の努力により、世界記憶遺産登録という大きな業績を成し遂げたことだと思う。今後も持続的な文化交流が続くことを願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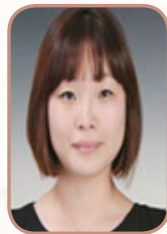
梁周元
芸術支援チーム長

2012年に(現)文化遺産チームに勤務中、韓国・日本・エストニアの専門家9人を連れて「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世界遺産日韓共同登録に向けた国際シンポジウム」開催をはじめ、担当者として日韓共同登録の妥当性に打診し始めた。中央博物館・江原道翰林大学・韓国ユネスコ委員会・国内外の専門家などを訪問し、「無形遺産」、「有形遺産」、「記憶遺産」の登録方法と資料を集めて検討した結果、最終的に「記憶遺産」として登録すべきという判断をした。財団で最初の担当者として活動していた最中に人事異動になり芸術支援チームで勤務しながらも「本当に登録が可能なのか?」、「我々にできるだろうか?」という疑問を持ちながら、最終登録まで直・間接的に役に立てれば良いという気持ちで国内外の行事に参加するなど関心を持ち、最終登録結果の発表日には嬉しい気持ちを隠さなかった。
今年2019年10月2日、財団職員のワークショップで「財団10周年記念」ユネスコ登録の有功表彰状を受けつつ直接担当して参加した職員の方々と見えないところで取り組んだ職員の努力が一本の映画のごとく過ぎ去った。
最近韓国と日本の関係が悪いが、民間交流の行事は持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し、「朝鮮通信使」に対して私の熱い思いは現在進行形だ。



金藝仁
文化空間チーム員

朝鮮通信使日韓文化交流事業の一環として朝鮮通信使が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れるまでは見えない方々の献身が込められていることを覚えている。
これは舞台の前で一度も照明を受けることができず、汗に濡れて両足を腫らしながら黙々と取り組んだ方々の努力で作られた貴重な結果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い。意味深いことだが、容易ではない過程と反復を経て共にした社員とスタッフの方々のおかげだったことを感謝で伝え、同時にやりがいを分かち合いたい。



崔智馨
青年文化チーム員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というのはるか遠く私の記憶の中でさえつかめない単語に最近名前がしばしば取り上げられた。これが実は何日も眠れず、週末もなく韓国と日本を行き来しながら努力した多くの仲間迷惑をかけるのではないかと心が重い。運が良く、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のための推進団が発足された当時、現文化遺産チームの末っ子だった。「歴史は過去と現在の対話」というが、朝鮮通信使が過去と現在、また未来をつなぐ対話になることを望む。

朝鮮通信使記録物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の登録、その後
一周年記念行事

2018年10月25日から27日まで、3日間、朝鮮通信使記録物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1周年の記念事業が行われた。朝鮮通信使記録物特別展示会(主催:釜山博物館)、参加者交流会(主催:釜山文化財団)、朝鮮通信使船の進水式(主催: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学術シンポジウム(主催:国立海洋博物館)の4つのイベントで構成されていた。

朝鮮通信使記録物特別展示会



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1周年の記念事業の幕を開けたのは釜山博物館が催した朝鮮通信使記録物特別展示会だった。展示の中には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れた朝鮮通信使記録物合計200点が展示された。これは財団が日本側の記録物の所蔵先に貸与を要請するなど企画段階から協力したためより深い意味がある展示だった。両国の関係者及び市民300人が参加した中で成功的に1周年記念行事を開幕することができた。

朝鮮通信使記録物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1周年の記念歓迎会



特別展示の開式が終わった後関係者の歓迎会が開かれた。韓国と日本の朝鮮通信使の事業の関連自治体や団体100人余りが参加した大規模な歓迎会だった。登録1周年を皆様が祝いしお互い信頼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交流の場であった。当時は登録後、朝鮮通信使の価値を未来の世代に引き継ぐことが重要だという懸案を互いに共有し、これを「新朝鮮通信使事業」に具体化しようという提案に共感した。

朝鮮通信使船(再現船)の進水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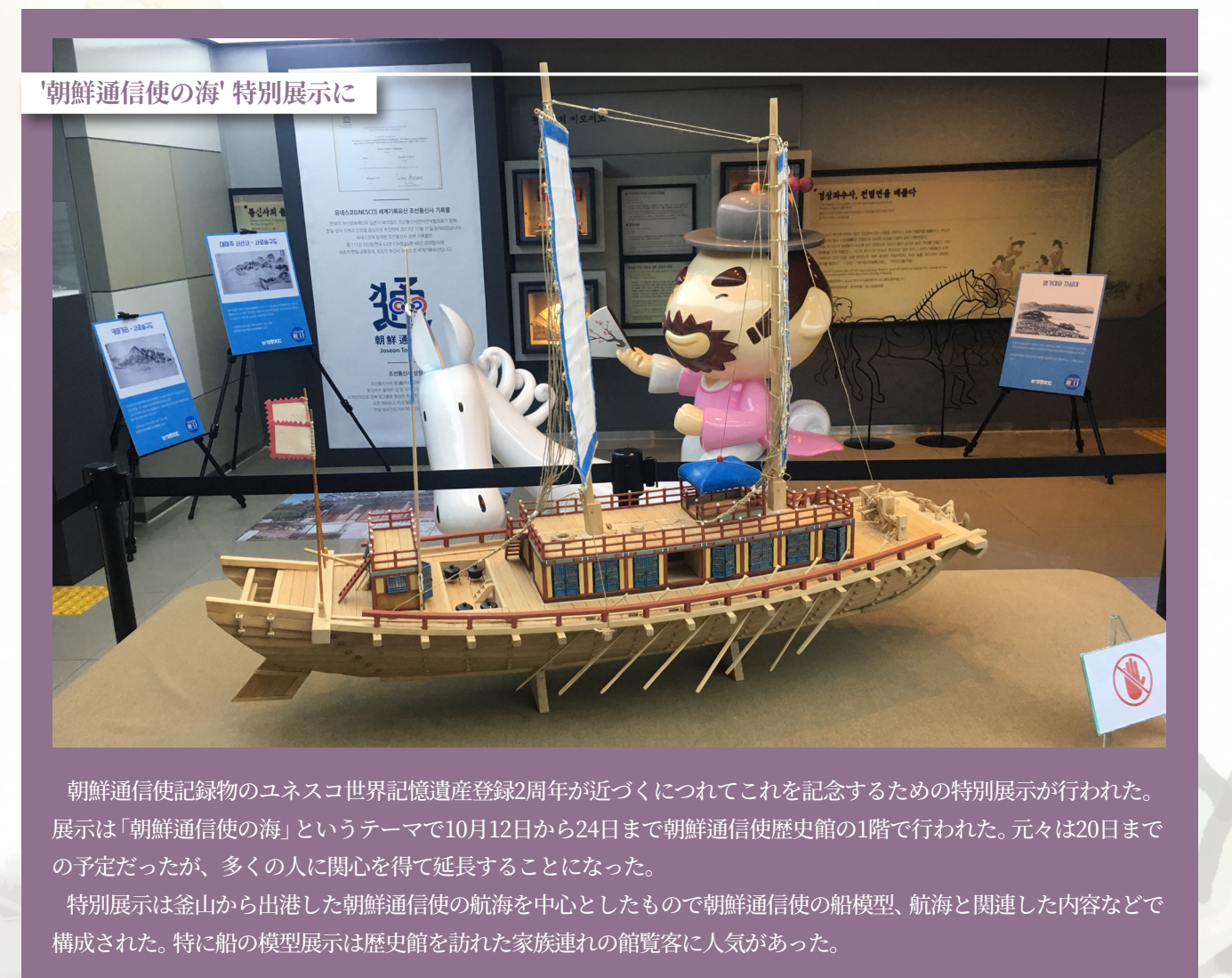
2日目は朝鮮通信使船の進水式が開かれた。行事の当日は雨天のため最初は難しかったが、事前に雨天に備えた結果、予定された行事を計画通り進むことができた。行事にはチョン・ジェスク(文化財庁長)やキム・ジョンシク(木浦市長)、財団引率の日本側来賓200人余りなど数々の関係者が参加した。

韓国と日本の朝鮮通信使関連機関の関係者及び専門家シンポジウム



最終日には学術シンポジウムが開かれた。学術シンポジウムの特性上、参加人員(50人あまり)がそれほど多くなく少し残念だったが、朝鮮通信使に関する意味のある発表で今後の事業の進行などに参考できる有益な時間だった。

朝鮮通信使記録物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の登録、その後
二周年記念行事



'朝鮮通信使の海' 特別展示に

朝鮮通信使記録物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2周年が近づくとつれてこれを記念するための特別展示が行われた。展示は「朝鮮通信使の海」というテーマで10月12日から24日まで朝鮮通信使歴史館の1階で行われた。元々は20日までの予定だったが、多くの人に関心を得て延長することになった。特別展示は釜山から出港した朝鮮通信使の航海を中心としたもので朝鮮通信使の船模型、航海に関連した内容などで構成された。特に船の模型展示は歴史館を訪れた家族連れや観光客に人気があった。

特別展示に続き釜山文化財団文化遺産チームはユネスコ登録2周年記念文化芸術公園「朝鮮通信使平和の記憶」も企画した。11月2日土曜日13時から15時まで朝鮮通信使歴史館の2階野外スペースで開かれた。公園は吹打及び伝統演劇・韓国音楽・ミュージカル・マジックパフォーマンスなどで構成されて観客は野外に敷いたピクニックマットに座り一緒に公演を楽しむことができた。

ユネスコ登録2周年までの記録を「2019年朝鮮通信使ジャーナル秋号」で見れて嬉しいと思う。今後の3周年も期待でき、これからも継続的に登録の意味を繰り返す時間があることを願っている。

-釜山文化財団の文化遺産チーム-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 日韓共同登録の 2周年を迎えて

2017年10月31日、韓国と日本とも午前1時を過ぎた時刻、

朝鮮通信使の記録物が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に日韓の共同登録が確定されたその日は、

釜山文化財団の文化遺産チームだけでなく、

財団のみんなにとって忘れられない感動的な瞬間だった。

早くも2019年10月、登録2周年を迎えたことによりこれを記念して登録過程と登録以降、

登録に取り組んだ人々のコメントを集めて朝鮮通信使ジャーナル秋号の企画特集を構成してみた。

登録の歴史的瞬間から2周年までを一緒に見てみよう。

-釜山文化財団の文化遺産チーム-

朝鮮通信使記録物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の登録過程

釜山文化財団、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に共同登録を提案

2012.5.5.



2012年5月5日、NPO法人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の朝鮮通信使ゆかりのまち全国交流会が釜山で開かれた。この時、釜山文化財団は晩餐会で「朝鮮通信使で日韓共同でユネスコ登録を推進しましょう。」と提案した。それに日本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が応え、ユネスコ登録への道が開かれた。

ユネスコ共同登録韓国推進委員会の発足式

2014.6.16.



2014年6月16日、韓国側推進委員会が発足した。釜山文化財団の代表理事を委員長に、チャン・ジェグク東西大学長やチャン・ジェジョンユネスコ韓国委員会の人文・社会・自然・科学分科委員会委員長を推進委員会の共同委員長に選任した。計37人で推進委員会を構成した。5月21日、日本側推進部会は先に設立された状態だった。13の自治体と3の民間団体が参加し、学術委員会と事務局で構成された。

12回学術委員会の進行

2014.12.20.~2016.3.4.

2014年12月20日、第1回朝鮮通信使ユネスコ記憶遺産日韓共同学術会議が開かれた。ユネスコの登録基準は真正性があり、独創的で非代替的な遺産であること、世界的な観点から重要な意味を持った遺産であること、管理計画が立っていることだった。第1回学術会議をはじめ、合計12回の学術会議が行われた。



共同申請書提出

2016.3.30.

2016年3月30日、釜山中央郵便局からフランス・パリのユネスコ事務局に申請書を郵送した。韓国側パク・スンファン(事務局長)と日本側阿比留正臣(事務局長)が参加し、両国のメディアが注目していた感動的な瞬間だった。



世界記憶遺産の登録確定

2017.10.31.

2017年10月24日~27日、ユネスコ国際諮問委員会(IAC)が開かれた。IACで会議を経てその結果をユネスコ事務総長に伝え、事務総長は承認後結果を発表する。2017年10月31日、韓国と日本とも午前1時を過ぎた時刻、ユネスコのホームページに嬉しい知らせが出た。両国の2006日間の努力が実を結んだ瞬間だった。





上田 拓嗣

下関市文化振興財団理事長

朝鮮通信使 in 下関馬関まつり

下関市民に夏の終わりを告げる馬関まつりにおいて、今年も朝鮮通信使行列再現が行われました。日韓両国の関係が難しい時期ではありましたが、関係した全ての皆さんの熱意で、途切れることなく16回目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平和友好を象徴するものとして、朝鮮通信使の価値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今後も、この素晴らしい文化遺産を通じて、下関・釜山両市民の小さな文化交流が、両国の関係改善に繋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下関は、本州の最西端に位置し、三方を海に囲まれた自然豊かな港湾都市です。市の中心部は、古くは「赤間関」と呼ばれ、これを「赤馬関」とも書いたことから、略した「馬関」という別名も用いられてきました。また、日本史における数々の重要な出来事に関係しており、下関条約(日清講和条約)をはじめ歴史の節目節目に登場してきます。

釜山との関係では、1905年に下関との間に関釜連絡船(現在の関釜フェリー)が就航し、日本から朝鮮半島や中国大陸へ渡る主要なルートとなったことから、東アジア諸国への玄関口としても栄えてきました。関釜両市においては、古くから地理的な繋がりが強いに加え、各種民間団体における姉妹関係の提携も多く、文化経済面での交流発展を受け、1976年に姉妹友好都市になりました。

朝鮮通信使行列再現が下関で本格的に登場するのは、2004年の「馬関まつり」からになります。このお祭りは、街の活性化を目指して1974年に「歌と踊りとみんなの夜市」という名前でスタートしましたが、1978年に市民からの公募で「第一回馬関まつり」と改められました。現在では、山口県下最大の40万人を超す人出で賑わう祭りへと成長し、下関市民に夏の終わりを告げる催しとなっています。今年も8月24日、25日にわたり開催され、朝鮮通信使行列再現は、約4千人の踊り手による「平家踊総踊り大会」とともに祭りの目玉行事になっています。両市から160人が参加し、色鮮やかな朝鮮王朝時代の衣装を着た参加者が、伝統的な音楽や踊りに合わせて約400年前の時代絵巻を再現しながら市街地や関門海峡沿いを練り歩きました。

さて、私の勤める財団は、関釜フェリーターミナルの向かい側にある下関市民会館の中に本部事務所を置いています。朝鮮通信使が始まると、財団職員も行列の出発式から市民会館に戻るまで現場を駆けずり回ります。翌日には、日韓の伝統芸能を披露する「釜山・下関ふれあいステージ」もありますので、かなりハードな2日間になります。私自身は、この仕事に関わって7年目になりますが、最初の4年間は本部詰めで、実際の行列を見ることもなかったため、正直、この事業に対し特段の思い入れもありませんでした。一昨年からは、本州での上陸記念碑での献花式に始まり、出発式、行列への帯同と一連の行事に関わるようになりました。さらには昨年より、財団法人釜山文化財団のお招きで、毎年5月に釜山で行われる朝鮮通信使祭りへの参加、海神祭の観覧や木浦での朝鮮通信使船の進水式などにも参加させていただき、次第に朝鮮通信使の歴史的な価値について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下関馬関まつり



下関行列

▲ 出処: 写真作家 ムン・ジンウ

今年の朝鮮通信使は、日韓での歴史認識をめぐる政治的摩擦が絶えない中、それも経済問題まで絡み合った難しい時期での開催になりました。連日、各地で自治体交流などの中止が報道されていたため、行列再現の実施が決まると、例年になくマスコミからの問合せが殺到しました。フェリー到着時からの異様な関心の高さを見るにつけ、本番の行列で不測の事態が起こらないかと、一抹の不安を覚えたのも事実です。

結果、特に問題が起こることなく、沿道の市民からは、「こういう時期だからこそ市民レベルでの交流を続けることが大事」「楽しみにしていたので、不安だったが開かれて本当に良かった」などの声も聞かれました。また、釜山の開成高校と姉妹校である下関商業高校の生徒が、今年も引き続きスタッフボランティアとして参加してくれました。生徒たちが、歓迎の意味を込めて日本伝統の折鶴を韓国の行列参加者に渡したところ、皆さん優しい笑顔で受取り、一緒に写真も撮ってくれたそうです。後に、担当の先生から生徒たちの感想をいただきました。「関係が悪い時なのに、わざわざ日本に来てくれた」「最初は戸惑ったが、心は通じ合えることが分かった」「仲が悪いのは政治の世界だけだと分かって安心した」など肯定的な感想が多く、良い国際交流の機会になったと思います。全てが終わり、とにかく今年も開催できたことに大きな価値を感じているところです。韓国側の参加者の皆様、世論の反対を恐れず参加していただき難うございました。また、一時は開催が危ぶまれた中、実現に向けて尽力されました釜慶大元総長の姜南周先生はじめ釜山文化財団の皆様にご敬意を表すところです。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は「平和の象徴」であり、豊臣秀吉の朝鮮出兵により破綻した国交を回復するとともに、両国の平和的な関係の構築と発展に寄与しました。さらには、日本の人々との交流が相互理解を深め、両国の文化の発展にも繋がりました。まさに今、朝鮮通信使が教えてくれた平和友好への知恵を踏まえ、両国の人々が互いの違いを尊重しつつ友好を深め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朝鮮通信使の教えを一言で表すならば、「平和友好には絶えず交流が必要である」ことだと思います。

皆さん、世界に認められた朝鮮通信使を途切れさすことなく後世に引き継いでいきましょう。



孫在學 釜慶大学校碩座教授

正使として眺めた2019朝鮮通信使の 下関行事



今年は初秋まで台風が吹き「この台風が過ぎ去ると、秋が来るだろう」と繰り返した。世界気象機関(WMO)が発表した「2015~2019全地球気候報告書」によると最近の5年が歴史上最も暑かったそうだ。特に韓国の気温上昇が急速であった。このような状況を予見していたが、国際社会はもとより韓国もまだ解決策を十分に実践していない。解決策は明らかだ。化石燃料の使用を画的に減らすことだが、これを国がむりやりに強制することが難しく、機嫌を伺っているのだ。地球温暖化は増々加速しており、だれかでもこの状況を解決する糸口を開く必要がある。

今年8月末、朝鮮通信使の正使として日本の下関を訪れた。もちろん、釜山文化財団から連絡があって訪問することになったが、最近の韓国と日本の関係を考えると気軽に受け入れるには悩みがある状況だった。

実は私にとって朝鮮通信使は格別な意味がある。2015年に国立海洋博物館が公式発足した時、初代機関長を務め、国立海洋博物館を大韓民国の代表ではなく世界中の海洋博物館として位置づけるためにいろいろ考えた拍子に朝鮮通信使遺物の世界遺産登録のため推進運動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それは終電に最後に乗ったというわけか、本当にありがたい方々の判定があった。国立海洋博物館が所蔵している遺物を終電に乗せてくれたのだ。もちろん、博物館が所蔵する貴重な遺物もたくさんあるが、この仕事に参加しようとした国立海洋博物館の立場とその役割を考えれば、本当に幸運だった。そうして得た世界記憶遺産は由来なく韓国と日本の民間団体が進んだことが実を結び、それこそ国際連合が強調していた人類史的意味を世界にはっきり示したものであった。それを祝うために大学生探訪団と朝鮮通信使の遺跡地を見回った私としては、特別な感慨と合わせて未来の韓国と日本の関係とは何かを深く考えることになった。



▲ 出処：写真作家 ムン・ジンウ
▲ 原稿執筆者：釜慶大学碩座教授 ソン・ジェハク

歴史は我々に何をもって存在するのか？

地球は生命の歴史でこれまで5回の大絶滅があった。そして今の地球現象は6回目の大絶滅を予見している。それは人類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地球温暖化によるものだ。氷が溶けて飢えているホッキョクグマだけでなく、もっと救援すべきなのは飢えている人類であることを我々は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連は2000年代を迎えて、我々のミレニアム開発目標(MDGs)を定めて推進していたが、目標を達成せずに時期が満了(2015年)された。続いて持続可能な目標(SDGs)を設定及び推進しているが、計画より成果が出ないのが現在の状況だ。これは多分にSDGsに参加する各国の姿勢とも関わっているが、国際関係の中の我々の立場とも関わっている。

同じ文脈で韓国と日本の関係を話してみよう。我々は日本に対して好き嫌いの日々を時には隣人であり、時にはライバルとして持続可能な発展の道を進もうとしている。しかし、我々に忘れられない苦痛を与えた侵略者に対して良くない視線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また、韓国と日本の所々の現場を見て歴史を理解し、両国の未来志向的な関係を作ろうとしている動きも知っている。

歴史とは何か？その時代と現場に存在した方々の認識と行動ではないか？

2019年朝鮮通信使の正使の役割を務め、日本の下関市を訪れた時私をはじめ、我々は現地での歓待を忘れられない。多くの群衆が街を埋め尽くして歓迎し、我々の登場と行動の一つ一つ注目しつつ手を振ってくれた彼らの姿から私は朝鮮通信使の歴史がなぜ人類遺産になり、なぜ韓国と日本、両国に教訓となるのかを振り返ら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下関市の最大の祭りの始まりで、ハイライトとなった朝鮮通信使の行列をこれからは両国から世界の祭へ朝鮮通信使の意味を広く知らせたい。

朝鮮通信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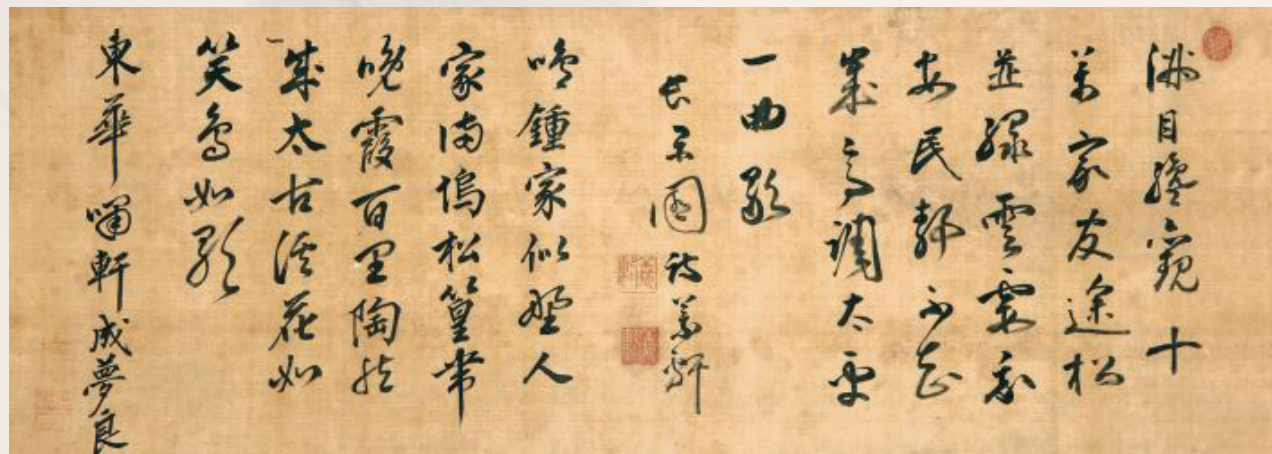
JOSEON TONGSINSA JOURNAL

CONTENTS

- 04 **巻頭コラム**
孫在學 釜慶大学校碩座教授
正使として眺めた2019朝鮮通信使の
下関行事
- 06 **誠信交隣**
上田 拓嗣 下関市文化振興財団理事長
朝鮮通信使 in 下関馬関まつり
- 08 **企画特集**
釜山文化財団の文化遺産チーム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
日韓共同登録の2周年を迎えて
- 14 **朝鮮通信使 24時**
曹禎潤 釜山広域市文化政策協力官
(前)釜山文化財団の文化遺産チーム長
文化芸術国際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
新朝鮮通信使
- 18 **朝鮮通信使 ギャラリー**
李炫周 文化財廳文化財鑑定委員
外交に絡まる文と字

成蒙良筆行書

Euiheon Seongmongryang Pil Haengseo
(Semi-cursive Script by Euiheon and Seong Moyngryang)



18世紀 | 義軒・成蒙良 | 書畫 | 絹本墨書 | 84.2×31.8cm | 釜山博物館所蔵

この作品は1719年(肅宗45)通信社書記の成夢良(1673~1735)と
当時朝鮮通信使を迎えた日本人のうち、
義軒という別号を持った人が一緒に書いたもので、七言詩が書かれている。
義軒が<長閑園詩>を書き江戸時代に太平聖代を歌い、
義軒の歌をもって成夢良が当時日本の太平な風景の詩を吟ずる。
これは当時日韓文士交流の生々しい姿を描写している。

発行日 2019. 11. 11 発行人 姜東秀
発行元 (財)釜山文化財団 釜山広域市南区牛岩路84-1(戡蠻洞)
Tel 051.744.7707
編集委員 韓泰文、白泰鉉、李珠英
編集企画 文化遺産チーム Tel 051.631.0858 www.tongsinsa.com
デザイン制作 コリア企画 Tel 051.204.7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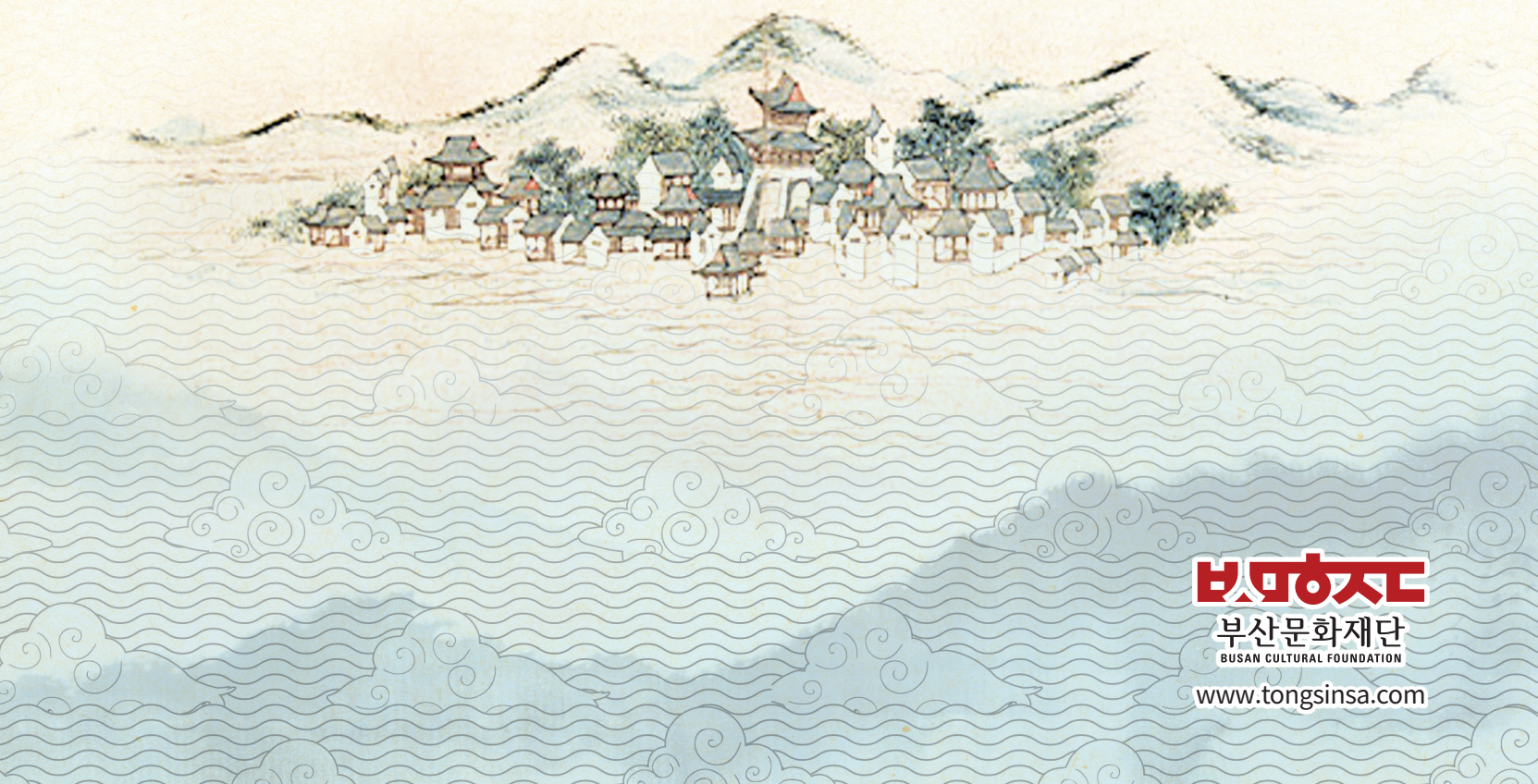
* 本誌に掲載された情報は、著者の個人的な見解です
* 本誌に掲載された文と資料の利用をご希望の際には、(財)釜山文化財団及び 著作権者両方より同意を得る必要があります。
* 朝鮮通信使ジャーナルは(財)釜山文化財団及び 朝鮮通信使文化事業ホームページからもウェブマガジンとして閲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
* 釜山広域市の2019年朝鮮通信使日韓文化交流の一環として制作されました。

(財)釜山文化財團 2019-016

AUTUMN 2019 秋号

朝鮮通信使

JOSEON TONGSINSA JOURNAL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www.tongsinsa.com